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임대료를 올렸다는 이유로 5억 원 청구, 실제 거래로 책임을 다투다.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전부 방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청구 전부 기각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때문에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조건을 협의한 일이 거액의 배상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조정할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규 임대차가 실제로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대조해야 했습니다.

02 임대료 요구와 실제 권리금 회수를 구분하다

이 사건에서는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새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의 갈등과 별개로 거래가 실제 성사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올랐다는 사실만을 떼어 보는 대신, 계약의 체결·건물 인도·권리금 지급으로 이어진 흐름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주장하는 회수 방해가 객관적 거래 내용과 맞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새 임대차의 체결과 권리금 지급 사실을 배상 책임 판단에 연결했습니다.

당신의 집과 가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묶여 있다면.

임대료 인상을 문제 삼은 5억 원 청구. 해울은 전부 막았습니다.

- 상가 임대료를 올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다면?
- 새 임차인과 계약했는데도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고 한다면?
-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 및 실제 사용 상황,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 사실이었습니다. 해율은 이와 같은 거래 경과를 토대로 임대인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액수의 크기보다, 그 책임을 뒷받침할 사실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른 것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임차인의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은 이 소송에서 청구된 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가 분쟁에서는 협상 중 오간 말과 실제로 마무리된 거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신규 임대차와 권리금 지급의 객관적 경과를 확인해 거래의 배상 청구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임대료 갈등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과의 핵심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청구된 5억 원 전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문제 삼은 5억 원 청구. 해율은 전부 막았습니다.

- 신규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지급 내역이 남아 있다면?
- 건물을 넘겨준 뒤에도 임대차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 계약 협상 과정의 말이 소송에서 다르게 해석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